

고려아연, 2.5조 규모 유상증자… “국민기업 거듭날 것”

이사회서 ‘일반공모 증자’ 의결
총 모집 주식수 373만2650주
80% 일반, 20% 우리사주 배정

이차전지 등 국가산업 육성 계획
할인율 30% 적용, 발행가액 책정

고려아연이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국민기업’으로 거듭난다. 유상증자 규모는 2조5000억원이다.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 일반 국민 등 다양한 투자자가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소유 분산을 통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소액주주와 일반 국민에게 분산된 소유구조에 맞도록 획기적으로 개방적인 지배구조 및 경영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30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공개매수 결과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사항 등을 보고하고, 부의안건으로서 일반공모 증자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추후 청약 공



고려아연이 30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일부를 우리사주조합에 넘기는 방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고를 시작으로 일반공모 증자를 실시한다. 총 모집주식 수는 373만 2650주로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소각대상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67만 원이다. 이를 통해 모은 자금 2조5000억원은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하고, 일부는 채무상환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고려아연은 우선 이번 총 모집주식 중 80%에 대해 일반공모를 실시하며

나머지 20%는 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할 방침이다.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우리사주조합을 제외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서는 그 특별관계자와 합해 총 모집주식수의 3%인 11만 1979주 내에서만 배정할 방침이다. 이는 주주기반을 확대해 국민기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일환이다. 일반공모 증자 시 1인당 청약 한도를 정해 놓는 실제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

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가격으로 하고, 발행공시규정 한도에 따라 할인율 30%를 적용한 금액을 발행가액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고려아연은 이번 일반공모 증자를 통해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유분산구조와 주주기반 확대 등을 통한 ‘국민주’로서 자리매김 ▲거래량 축소로 인한 상장폐지 리스크 해소 및 주식 유

동성 증대를 통한 주가 불안정성 해소와 주주보호 ▲MSCI Korea 지수 편출리스크 축소 ▲자금조달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 강화 및 재무구조 안정화에 기여 ▲우리사주 배정을 통한 임직원 복리 및 노사협력 증진 등이다.

고려아연은 이번 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적극 진행하고 일부는 차입금 상환에도 사용할 계획이다.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신재생에너지 및 그린 수소 ▲이차전지 소재 ▲자원순환 사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은 고려아연의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이익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국민을 상대로 한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적대적 M&A와 이로 인한 기술유출, 나아가 국가기간산업의 해외 매각 등을 방지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임직원과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 전체의 이익 보호함으로써, 진정한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북한군 3000명, 러 교전지역까지 이동”

대통령실 “파병 최고 1.1만명 판단”
우크라, 파병대응 특사파견 논의

대통령실은 30일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3000명 이상이 러시아 서부 교전지역 가까이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한 특사 파견 논의를 이번 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 직접 지원을 검토한 적은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와 우방국 정보당국은 이미 실행된 북한군 파병규모를 최소 1만1000명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 중 3000명 이상은 이미 러시아 서부 교전지역 가까이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보당국 발표 이후에 국제사회 규탄이 시작되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10월23일에서 2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고,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현재 러시아에 방문해 있는 등 긴급히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27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헤르손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 진지를 향해 122mm 포를 발사하고 있다. /뉴시스

파악된다”고 전했다.

북한군은 러시아 군복과 무기체계를 사용하면서 러시아 군 체제로 편입된 위장파병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의사소통 문제 등 여러 장애 요인이 감지되고 있어서 실제 전투에 언제 참여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특사파견논의를 이번 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측에서 특사를 지

정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야기할 플랜을 짜는 데는 하루, 이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29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조만간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특사가 방문하면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다음 단계적 조치”의 결정적 기준에 대해 “북한군이 참여한 우크라이나 전투 개시가 될 것”이라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안보를 지켜야 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포탄 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포탄은 105mm, 155mm 등 여러 구경이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포탄 지원 요청을 한 적이 없다”며 “따라서 우리가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틀린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서예진 기자 syj@

정유경 회장, 시코르 총괄 대표직속 신설

» 1면 ‘신세계 정유경 회장…’서 계속

또, 디지털 조직 강화를 통해 총괄·본부·담당 체제를 구축하고 기존 디지털 인텔리전스 총괄에서 디지털&글로벌 총괄로 개편했다.

특히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뷰티 편집숍 시코르(CHICOR) 총괄을 대표 직속으로 신설했다. 신세계백화점이 운영하는 뷰티 편집숍 시코르 정 신

임 회장이 해외 편집숍에 대해 직접 구상한 사업이다. 시코르는 최근 AK 플라자 홍대점을 리뉴얼하는 등 뷰티 판매 채널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마트부문은 조직 개편을 통해 판매 본부와 트레이더스 본부를 영업본부로 통합했다. 이마트 전략 마케팅 본부도 신설했으며, B2B 사업 조직을 일원화해 운영키로 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엔·달러 환율 153엔 중반까지 치솟아

» 1면 ‘日 자민당 총선 참패…’서 계속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시바 총리는 총리직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달 11일 특별국회 개회 전까지 야당 중 한 곳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의 지지율은 중의원 선거 직후 32%까지 하락했다.

총리 취임 한 달 만에 ‘레임덕(권력 누수)’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만큼 일각에서는 이시바 총리의 조기 퇴진 가능성도 제기되며 엔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이시바 총리의 조기 퇴진 시 가장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인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기조를 반대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가 중도 퇴진하지 않더라도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경기부양책 등으로 엔화 약세를 촉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엔화 가치는 빠르게 하락했다.

엔화 가치의 척도가 되는 엔·달러 환

율은 지난 28일 달러당 153엔까지 치솟아 3개월 만에 최고치(엔화 가치 최저)를 기록했다.

엔화 가치 급락에 일본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엔·달러 환율은 29일 오후 달러당 152엔 후반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30일에는 다시 153엔 중반까지 상승했다. 엔·달러 환율이 연중 최저치(엔화 가치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 9월 16일 대비 14엔 상승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라 엔화 가치가 당분간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은 “중의원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가 참패하면서 당분간 아베노믹스 정책 기조 지속은 물론 재정부양책이 한층 강화될 여지가 커졌다”며 “이에 엔화 추가 약세 기대감도 강화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 이후 이시바 총리의 조기 퇴진 가능성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 또한 엔화의 추가 약세가 예상되는 이유”라며 “이시바 총리 조기 퇴진 시 일본 은행의 긴축기조 전환 속도가 더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에스티젠바이오, 영업익 4억 ‘흑자전환’

» 1면 ‘CDMO 몸집 키우는…’서 계속

실제로 에스티젠바이오는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우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 승인 획득, 유럽 의약품청(EMA)의 우수약품 품질관리 기준(GMP) 심사 통과 등을 완료했다.

에스티젠바이오는 올해 상반기 매출

로 전년 동기 대비 19.1% 증가한 192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적자를 지속하던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한 4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대표 정통 제약사인 유한양행도 자회사 유한화학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의 하나로 원료의약품 CDMO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유한화학의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은 1186억원인데,

유한양행 전체 매출에서 유한화학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2.2%다. 유한양행은 해당 매출이 유한양행의 해외 사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한양행은 지난 9월에는 글로벌 빅파마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치료제의 원료의약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유한양행은 유한화학과의 협력해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에 대한 해외 파트너사를 지속 발굴해 해외 시장을 개척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